정보

개요
곡명: Five Orchestral Pieces, Op. 16
작곡가: Arnold Schoenberg(아르놀트 쇤베르크, 1874–1951)
작곡 시기: 1909년, 1922년 개정, 1949년 표준 오케스트라판
초연: 1912년 9월 3일, 런던 Queen's Hall. Sir Henry Wood 지휘
성격: 자유로운 무조 어법으로 쓴 다섯 곡의 관현악 연작이다. 1909년 원판과 1922년 개정 대편성판, 1949년

축소판이 전승된다. IMSLP: Five Pieces for Orchestra, Op. 16

Wikipedia: Five Pieces for Orchestra

Arnold Schoenberg의 《Five Orchestral Pieces, Op. 16》은 관현악을 위한 전곡으로, Vorgefühle, Vergangenes, Farben, Peripetie, Das obligate Rezitativ 의 순서로 이어진다. 이 연작은 긴 주제 전개를
한 곡 안에 펼치기보다 다섯 곡의 짧은 음향 상태를 나란히 놓으며, 판본에 따라 관현악 규모와 파트 수가 달라진다.

출판 정보와 판본

1912년 초판은 C. F. Peters에서 나왔고, 처음에는 다섯 곡이 번호만으로 출판되었다 . 출판 과정에서 요청된 제목은 1922년 개정 인쇄본에 들어갔다. Arnold Schönberg Center는 1909년 대편성 원판, 1922년 개정 대편성판, 1920년 실내 관현악판, 1949년 표준 오케스트라판을 별도 버전으로 구분한다.

1920년 판은 Verein für musikalische Privataufführungen을 위해 마련되었고 , 1925년에는 Felix Greissle 의 별도 실내 관현악 편곡이 Peters에서 출판되었다 . 따라서 작품명만으로는 실제 공연에 사용된 편성을 알 수 없으며, 총보의 버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소요 시간

Schönberg Center와 IRCAM은 전곡을 약 16분으로 제시한다. 다섯 곡이 짧은 시간 안에 연속되므로 , 전체 길이는 개별 곡의 독립적인 비중보다 판본과 연주 템포를 함께 고려해 파악해야 한다.

편성

1909년 원판은 피콜로와 여러 플루트, 오보에와 잉글리시 호른, D 또는 E-flat 클라리넷을 포함한 클라리넷군 ,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바순군과 콘트라바순으로 구성된다. 금관에는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가 들어가며, 팀파니와 베이스드럼 ·심벌 ·트라이앵글 ·탐탐 ·실로폰 등의 타악기, 하프, 첼레스타, 현악 5부가 더해진다.

원판의 세부 파트 수는 전문 자료마다 다르게 적힌다. Schönberg Center와 IRCAM은 오보에 3, 바순 3, 트롬본 4에 가까운 목록을 제시하는 반면, Los Angeles Philharmonic의 원판 요약은 오보에 2, 바순 2, 호른 4, 트롬본 3을 제시한다. 공연에서는 사용하려는 판본의 파트보를 기준으로 이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1949년 표준 오케스트라판은 목관과 금관을 줄여 현실적인 연주 규모를 마련한 버전이다.

다섯 곡의 순서

I. Vorgefühle

제목은 ‘예감 ’을 뜻한다. 빠른 사건과 오스티나토 ,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동기가 첫 곡의 진행을 이룬다. 안정된 주제가 자리 잡기 전에 관현악의 제스처가 서로 교차하면서 연작의 출발점을 만든다.

II. Vergangenes

‘지나간 것 ’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곡은 첫 곡의 급한 움직임과 다른 속도로 선과 음색을 조직한다. 섬세한 선율 조각과 화음이 이어지며, 관현악은 긴 주제를 발전시키기보다 작은 음향의 윤곽을 차례로 드러낸다.

III. Farben

‘색채 ’에서는 거의 정지한 화음이 관현악의 악기 조합을 바꾸며 이동한다. 화음의 음고가 크게 진행하지 않아도 어떤 악기가 소리를 이어받는지에 따라 표면이 달라진다. 이 방식은 음색이 선율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Klangfarbenmelodie 논의와 연결되어 20세기 관현악 작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뤄진다.

IV. Peripetie

‘급전환 ’은 대조적인 블록을 짧은 시간에 병치한다. 다이내믹, 속도, 관현악 조합, 동기의 성격이 연속해서 바뀌며, 각 변화가 다음 변화의 출발점으로 이어진다. 이 곡의 형식은 하나의 장기 주제보다 급격한 전환의 순서로 파악된다.

V. Das obligate Rezitativ

‘의무적 레치타티보 ’라는 제목은 성악 레치타티보를 뜻하지 않는다. 여러 관현악 성부가 말하듯 이어지는 비주제적 선율과 촘촘한 음색 밀도를 만들며, 대칭적인 구성으로 연작을 마무리한다 . Schönberg Center가 말하는 ‘speaking music’이라는 설명은 이 종결곡의 발화적인 움직임을 가리킨다.

제목과 관현악 문법

쇤베르크는 작곡 과정에서 Richard Strauss에게 보낸 설명에서 이 소품들을 순환적인 연결이나 장기적인
주제 전개보다 색채 ·리듬 ·분위기의 지속적인 교환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제목은 이런 음악적 상태를
식별하는 표지로 기능하지만 , 구체적인 줄거리를 지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특히 Farben 은 음색의 교체 자체를 형식의 사건으로 만들며, 나머지 곡들도 불안, 과거, 급전환, 발화라는 서로 다른 관현악 작동을 압축한다.

초연과 판본의 수용

1912년 9월 3일 런던 Queen's Hall에서 Sir Henry Wood가 초연했고, 1922년 12월 Leipzig Gewandhaus 에서는 Wilhelm Furtwängler가 개정판을 지휘했다. LA Phil의 공연 기록은 1929년 Eugene Goossens가 1909년 원판을, 1963년 Zubin Mehta가 1949년 판을 지휘한 사례를 남긴다. 한 작품이 서로 다른 관현악
규모로 연주되어 온 경로가 이 기록에 드러난다.

초연 당시의 수용은 순탄하지 않았다. Arnold Schönberg Center 아카이브와 LA Phil 자료가 인용하는
Ernest Newman의 비평에는 일부 청중의 야유와 웃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1912년의 청중이 짧고
밀도 높은 무조 관현악을 어떻게 맞닥뜨렸는지 보여 주는 초기 수용 자료다.

주요 자료

Arnold Schönberg Center 작품 정보

Arnold Schönberg Center 아카이브 작품 기록

Los Angeles Philharmonic 작품 해설

IRCAM 작품 데이터베이스

Schoenberg Music 작품 카탈로그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7:55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7:55 UTC by 안준영